



## 딘 엠 데이비스 감독과 함께 하는 특별 모임

**지**난 2013년 3월 2일 서울 남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에서 교회 감리 감독단 제2보좌로 봉사 중인  
 딘 엠 데이비스 감독과 함께 하는 특별 모임이  
 열렸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가르히코 야마시타  
 장로의 감리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서울 경인 지역의  
 회원들이 참석해 데이비스 감독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딘 마이런 데이비스 감독은 201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감리 감독단으로 부름 받았다. 1951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난 그는 부인인 달라 제임스  
 데이비스 자매와의 사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부동산업계에서 유능함을 발휘하며  
 경력을 쌓아갔다.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단 등 여러 부름에서 봉사한 데이비스  
 감독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선교사들을 이끌었다.

이날 첫 연사로 연단에 선 데이비스 자매는 자신이  
 받은 축복 중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스 감독은 연단에 서서 “안녕하세요?”라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씀의 문을 열었다. 그는 회원들에게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시험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리는 필멸의 상태 동안  
 질병, 유혹, 재난, 전쟁, 가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세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대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데이비스 감독은 말씀을 계속하며 시련에는 축복도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딘 엠 데이비스 감독.



모임 후 인사를 나누는 데이비스 감독, 야마시타 장로, 김창호 장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동정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리하이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했던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니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시련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삶에서의 시련이 기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그리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질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 감독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시련과 그에 따른 축복, 그리고 성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전 성전 부지를 찾는 일을 하던 때의 경험도 들려주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성전 부지를 찾던 데이비스 감독은 성전 건립을 반대하던 시장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 시련은 데이비스 감독 혼자만의 시련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 전체의 시련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설득하려고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회원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원래 30분 정도 갖기로 했던 모임은 회원들의 설득과 간증이 이어지며 90분으로 늘어났고 결국 모임의 마지막에 시장은 데이비스 감독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다. 시장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데이비스 감독은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가 도움을 얻고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리라.”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아마시타 장로는 선교 사업을 나간 딸과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진 힘과 의미에 대해 말씀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마시타 장로의 말씀을 끝으로 모임은 끝났다. 데이비스 감독과 자매는 모임 후 회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데이비스 감독은 한국 성도들의 환대와 신앙에 감사를 표하며 다시 한 번 방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하늘과 땅을 묶으며

# 가족 역사 특별 모임

**지**난 2013년 2월 7일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에서 가족 역사 특별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는 가족 역사 사업을 담당하는 총관리 역원인 알렌 에프 패커 장로가 참석해 감리를 했으며 본부 가족 역사부 총괄 책임자인 데니스 브림홀 형제와 본부 가족 역사부의 국제 사업부 책임자인 스티브 락우드 형제가 함께 참석했다. 평일 오전이었지만 각 지역의 스테이크 회장단은 물론이고 가족 역사 상담자와 그 외 가족 역사 사업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모임은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모임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데니스 브림홀 형제는 가족 역사 사업이야말로 행복의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전했다.

“가족 역사 사업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행복을 주시겠다고 성스러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조들을 위해서 성전 의식을 행할 때 우리로 인해 선조들은 행복해집니다. 우리들도 선조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데니스 브림홀 형제의 말씀 뒤에는 스티브 락우드 형제가 진행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 시간 동안 회원들은 패밀리 트리 입력 방법과 입력 시 오류가 생겼을 때의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내용부터 왜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하는가를 묻는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다. 패커 장로와 브림홀 형제, 그리고 락우드 형제는 회원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하는 내내 가족 역사 사업에서 청소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첫 번째 질문이었던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 역사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베드나 장로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며 청소년들을 가족 역사 상담자로 봉사하도록 기회를 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패밀리 트리 앱 출시와 각 단위 조직에 가족 역사 사업 용 컴퓨터를 보급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족 역사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회원들의 마음과 의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패커 자매는 연단에 서서 아주 오래 전부터 가족 역사 사업을 해 왔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 후 가족 역사 사업은 “과거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업이 있기에 우리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연사였던 패커 장로는 로건 성전을 짓는 일에 일조한 증조부의 이야기와 바로 그 로건

**앞 줄 왼쪽 두 번째부터 스티브 락우드 형제, 데니스 브림홀 형제, 패커 자매, 알렌 에프 패커 장로.**

성전에서 성전 결혼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조들의 희생이 우리 세대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커 장로는 가족 역사 사업이야말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다.

“가족 역사 사업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부름을 줌으로써 진정한 개종을 이룰 수 있고 청소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조상들에 대한 사랑과 영을 인식하는 방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돌아가신 분들을 구원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



# 취업 자원 센터에 연락한 후

회원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취업 자원 센터는 취업 전문가들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 자원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두 자매의 사연을 소개한다.

## 한 통의 전화

최영원 자매, 안양 스테이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내게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에 와드 게시판에 붙은 취업 자원 센터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나는 내가 쓴 자기 소개서에서 고칠

부분은 없는지 묻기 위해 취업 자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봉사 선교사님께 도움을 구했다. 전화를 받은 장로님은 이메일로 자기 소개서를 보내보라고 하시고 꼼꼼히 첨삭을 해 주셨다. 나는 수정한 자기 소개서를 구직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자 여러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왔다. 취업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그 연락은 희망을 품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다. 나는 그 중 한 회사와 면접 약속을 잡고는 또다시 취업 자원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장로님은 나와 직접 만나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면접 요령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신감과 환한 미소였다. 결국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 내가 원하던 웹디자인 분야였고 근무 조건도 무척 좋은 곳이었다. 아들의 선교 사업 기금을 걱정하던 내게 취업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취업 자원 센터는 내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었다. ■

## 실제로 그 질문이 나왔다!

성유진 자매, 대구 스테이크



**나**는 학교에서 계약직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지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쓰는 일이 만만치가 않았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 보았던 취업

자원 센터 기사였다. 나는 옛날 리아호나를 뒤져 취업 자원 센터로 연락을 했고 자기 소개서를 쓰는 요령부터 예시문까지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취업 전문가로 봉사 중인 장로님께서도 첨삭 지도도 해주셨는데 몇 단어를 바꾸었을 뿐이지만 그 몇 단어로 내 자기 소개서가 확 달라졌다. 나는 원하던 학교에 서류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 사이 장로님은 매번 전화를 하셔서 진행 상황과 결과를 물어보셨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영어 면접까지 도와주기로 하셨다. 나는 장로님 부부와 성전에서 만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로님께서도 면접 시 나올 만한 질문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답까지 준비해서 내게 알려 주셨다. 그리고 면접 당일, 나는 면접관의 세 가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장로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훌륭히 면접을 마쳤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취업 자원 센터가 없었다면 나의 취업은 조금 더 늦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취업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 확실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한민족과 교회의 만남 ④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기사는 교회와 한민족과의 관계를 김호직 박사의 침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내 상황은 어떠했을까? 흥미 있는 몇 가지 사료는 우리의 탐구 열기를 자극하고도 남는다.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rant, 1859.7.19~1916)가 1915년 9월 4일자로 작성한 당시 조선 종교부 장관 우아미와의 비공식회의 보고서에는 우리 교회의 한반도 등장을 경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우사미(Usami) 씨는 우리를 성심 성의껏 환영하였고, 법률과 규정 중에는 때때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루어야 할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언급하였다. 잠시 후 우리는 제9조(Art. 9)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설교할 수 있는 “허가 획득(obtaining permission)”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우사미(Usami) 씨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논의는 점점 더 진행되어 잠시 후 총독(Governor General)의 “허가 획득(obtaining permission)”이라는 용어가 “허가장 획득(obtaining permit)”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고, 조선에서 발효되는 법률도 일본 본토에서의 법률과 동일하다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우사미(Usami) 씨는 일본의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장된 신앙의 자유로 인해 종교의 전도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제9조(Art. 9)의 실제 목적은 조선에 새로운 종파가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모르몬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를 금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정규 선교 단체에게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는 것이다.”<sup>1</sup>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에 수록된 1921년 10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루이스 시볼트(Louis Seibold) 특파원의 기사 역시 이미 당시 한국 내에 우리 교회 또는 교인(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는 모호하지만)의 존재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sup>2</sup>

“[한국 부산, 9월 24일] 자신들의 기원을 다소간은 모호하지만 수천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고 있는, 이 은둔의 왕국에 사는 국민들은 비록 지금은 억압받고 있지만, 자신들만의 국가를 갖고자 하는 끊이지 않는 염원을 호소하고 있다. …… 이 한국인들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조직적인 정부기능 같은 분야에는 별다른 재능이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점잖고 또 우호적인 사람들이다. 그 나라의 문맹자가 1천 7백만에서 2천 백만 정도로 인구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도 한층 진보적이며 또 상류 계층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인들을 상스럽다고 여기고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동양철학에 대해 깊이 학습하고 유교와 중국 불교의 교리를 지키는데 열정을 바치고 있으며,

일본의 조선총독 사이토 남작이 나에게 보낸 공식적인 통계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일본 종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이 수치들은 한국에 대략 366,000명의 일본인이 있으며 그들이 354개의 신도와 일본 불교 사찰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도는 168,454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사의 한국인 신자는 5,953명이고 일본 불교 사찰의 한국인 신자는 17,996명뿐이지만, 한국 불교 사찰의 한국인 신도는 174,000명에 이른다. 이 수치들은 큰 규모의 중심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나에게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인과 일본인은 296,487명으로 일본 감리교, 일본 장로회, 일본 조합교회, 장로 선교회, 영국국교회, 구세군, YMCA, 로마가톨릭선교회, 성베네딕트 수도회, 감리교 남선교회, 감리교 북선교회, 러시아정교,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 동방선교회, 그리고 말일성도교[몰몬교]로 나뉘어져 있다.”

회복된 복음은 이미 50년간의 공백으로 여겨졌던 시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

주  
1. “조선의 내무부 장관(DIRECTOR OF INTERNAL AFFAIRS) 겸 종교부 장관(DIRECTOR OF RELIGIONS)인 우사미(USAMI) 씨와의 만남에 관한 보고서,” 재한선교사보고문집,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2. 문서 42. “일본의 정예 부대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자유를 향한 꿈을 꺾지 못하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2013년 지역 복지 강조사항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②

### 자립도를 높임

자립도를 조금씩 높여감으로써 대비를 시작한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좀 더 사랑을 지니고, 더 용서하고, 부모와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지런히 일하고, 직장 동료에게 신망을 얻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면 취업이 어려울 때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항상 여분의 식료품을 구입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음식을 교체해 가며 사용하면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고, 부채를 갚고, 매달 적은 돈이나마 저축하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도 그럭저럭 생활할 정도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있다.

### 대비를 향한 작은 발걸음

우리는 또한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항상 절반 이상을 넣고, 지갑에 20달러나 50달러, 100달러를 넣고 다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장신구를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드는 때가 있어도 그런 상황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가정과 뜰을 잘 살펴보면서 재난을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엘마서 48~50장과 제3니파이 3장 및 17장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어려운 시기에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관해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 유용한 자원

우리가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수히 많다. 정부와 여러 단체에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따금 시간을 내어 관련 웹사이트로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 상태를 개선해 나간다. 여러분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는 동안과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배울 수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인력을 갖추고 있다.(예: <http://webzine.blutouch.net>, <http://www.jjmind.com> 참조) 또한 어린이들에게 재난에 대해 재미 있고 알기 쉽게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과 게임도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http://kids.nema.go.kr/> 참조) LDS.org에는 비상사태 대비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침이 있다. 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단한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 평소에 먹는 음식의 3개월치 비축
- 식수
- 재정 예비금
- 기본적인 식품의 장기 비축
- 복용약 및 응급처치 물품
- 의류 및 침구류
- 중요 문서
- 재난 발생 후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

(LDS.org,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가족의 필요 사항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우선 자기 가족을 챙겨 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각 가족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식구가 많은 가족과 적은 가족의 필요 사항이 다르고,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가족과 장성해서 집을 떠난 가족의 필요 사항이 다른 것이다. 이외에도 유아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연로한 식구가 있는 가족은 그 나름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에서의 대피 절차를 교사와 상의할 수 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은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비상사태 대피 및 지원에 대해 이웃이나 현지

복지 서비스 단체, 서비스 제공자, 지역 사회 단체와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식구가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및 병원 측과 협의하여 정전이 발생한 동안이나 재난 이후에 각 개인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한 후에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작년 3월 11일 일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분실했다. 처음 며칠 동안 비록 불편하기는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을 되찾자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가족을 찾는 도움을 받으려면 서류를 읽어야만 했으므로, 안경이 없는 현실은 큰 불편을

야기했다. 안경이나 틀니, 보청 기구, 목발이나 지팡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련 필요 사항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의료 보험 카드 사본,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복용약의 처방전, 의료 상태에 대한 서면 기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족 토론

대비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다. 부모가 화재나 지진으로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일부 가족들은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자녀에게 가족의 재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하는 부모도 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다양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생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식구가 다 집에 있을 때, 다 자고 있을 때,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 등, 각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행동 요령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은 집을 비우는 방법,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서로 흩어졌을 때 다시 만날 장소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각 가족은 모두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이런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가족 비상사태 계획을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와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와드나 교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연락하는 방법을 물어본다. ■

## 침례의 물가에서

### 딸에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

이종화 형제, 부산 스테이크

**막**내 딸인 윤주는 자신의 열한 살 생일에 나에게 선물을 달라고 졸랐다. 선물이란 다름 아닌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회원이었던 아내는 딸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신이 될 때까지도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가족들을 따라 한두 번 참석하기는 했지만 항상 그때뿐이었다. 나는 어린 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아내와 딸들을 따라 교회에 참석했다. 윤주는 정말로 기뻐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와드 회원들의 따뜻한 관심에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교회에 나가고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가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무척 친해졌다. 내 마음은 시나브로 교회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들려주는 말씀과 공과가 내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는 평상시 살아왔던 삶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가정을 중심에 두는 복음 원리와 가족 선언문이 제일 와 닿았다. 결국 나는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다. 결심을 한 후 마지막 접견 전에 웬지 모를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복잡했지만 접견을 하러 와드까지 가는 길을 걸으며 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에 침례를 받았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참 많이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 침례는 딸 윤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하지만 사실 선물을 받은 것은 나였다. 침례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19명/해외 2명



**구소희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서울 선교부



**송혜민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선교부



**이태경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최서영 자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부산 선교부



**김대원 장로**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대전 선교부



**신정아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일본 고베 선교부



**이혜원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서울 선교부



**최수범 장로**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선교부



**노영주 장로**  
광주 스테이크  
점단 와드  
부산 선교부



**오솔아 자매**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  
대전 선교부



**정효정 자매**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최혜정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서초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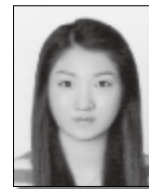
**박민정 자매**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부산 선교부



**오인진 자매**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  
부산 선교부



**조수진 자매**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대전 선교부



**황예지 자매**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호주  
브리스베인 선교부



**박은경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윤현선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부산 선교부



**조은비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변아라 자매**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이사라 자매**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서울 선교부

## 바로잡습니다

3월호 지역 소식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에 소개되었던 성민아 자매의 출신 와드를 '신갈 와드'에서 '신풍 와드'로 바로잡습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장: 이인호(전임: 이광준)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이상래(전임: 이인호)  
서울 강서 스테이크 회장단 제2보좌: 권장혁(전임: 이상래)

## 개정된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이 출판되다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판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일부 가사가 변경되었으며 그 외 사소한 오류들을 바로잡았다. 또한 표지와 내지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로고가 사용되었다.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은 관리 본부를 통해 각 단위 조직으로 배부되었으며 향후 추가 구입을 원하는 개인은 배부 센터나 출판물 및 성전복 판매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